

원 장관, 철도사고 현장방문 및 현장직원 의견 청취

- “철도공사 경영진·현장직원, 정부 모두 힘을 모아 철도안전 회복해야” -

- 11월 9일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원희룡 장관은, 곧바로 영등포역으로 이동하여 밤 10시경부터 철도공사로부터 오봉역 사고 및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,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사고경위를 보고받는데 이어, 원 장관은 철도공사 현장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먼저,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,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”면서, “올해만 벌써 3번의 여객열차 궤도이탈과 4번의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특히 11월 3일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지 이틀 만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여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뿐이다”라고 하며,
 - “기술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”라고 하면서,
 -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초동조사 결과 사고열차 도착 전 사고지점의 분기레일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들었으며, “선로 유지보수라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느냐”라고 말했다.
- 아울러 원 장관은 “국민안전이라는 과제 앞에 국토부, 철도공사 경영진, 현장직원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”며, 생사를 같이 한다는 자세로 무너진 철도안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 - “특별 점검과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에 대한 전면 쇄신을 추진할 것”이라며 “하나부터 열까지 짝 다 바꾸고 한국철도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안전 철도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2. 11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